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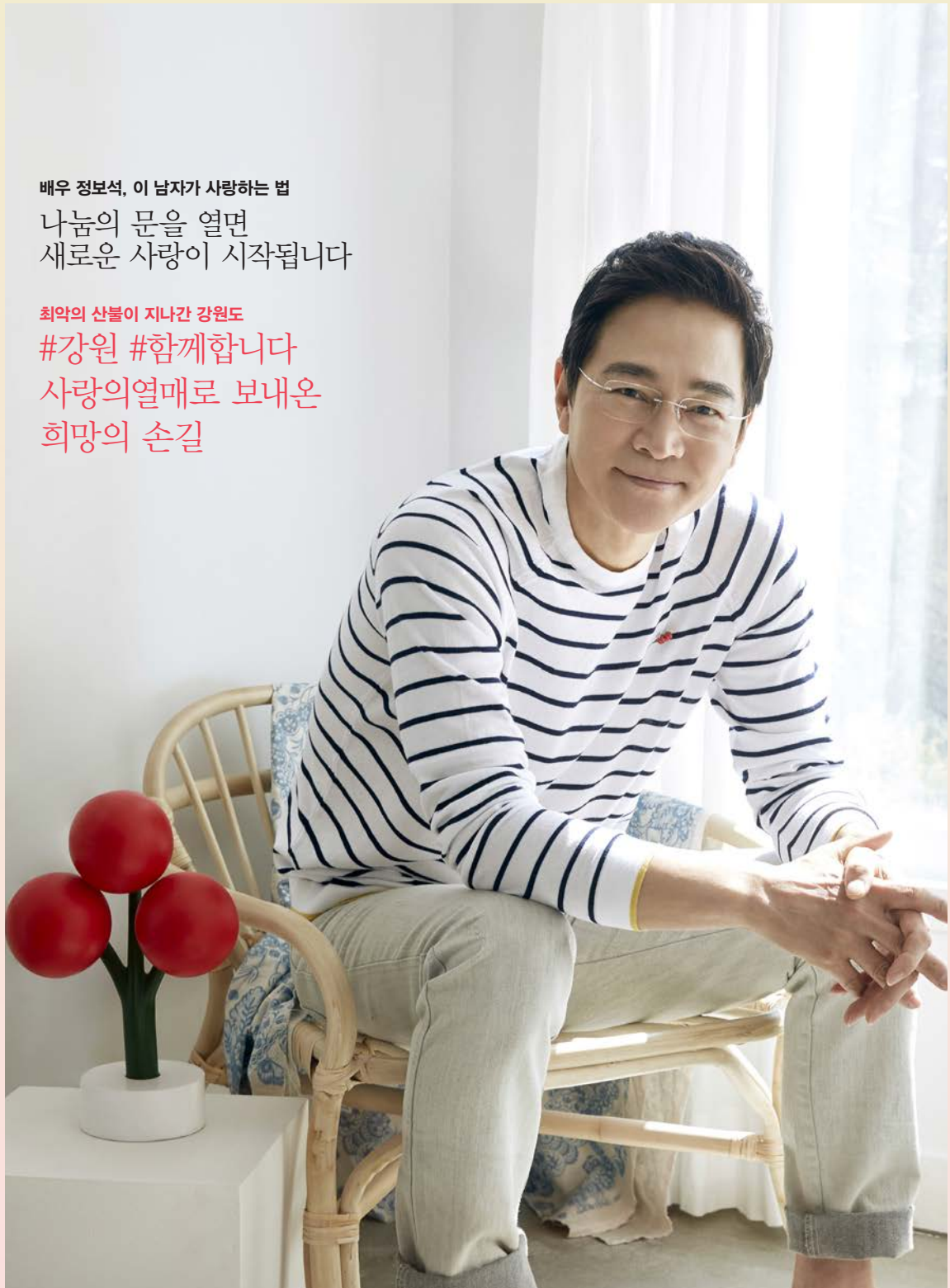
# 사랑의열매

ISSUE **145**  
2019 MAY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배우 정보석,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나눔의 문을 열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최악의 산불이 지나간 강원도  
#강원 #함께합니다  
사랑의열매로 보내온  
희망의 손길



## “걱정없이, 무럭무럭”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할 일이 많은 탓에 ‘감사의 달’이라고도 하죠.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던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표현을 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뜻깊은 일 아닐까요? 이달 특집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http://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http://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

## #강원 #함께합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일대에서 큰불이 나 주민들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까지 잃었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는 #강원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달 나눔태그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자에게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의 피드를 담았습니다.



라온이 계좌로 늘 입금되는 돼지 씨 돼지 집을 때가 되었는데, 마침 좋은 곳에 쓸 일이 생겼네. 얼마 안 되지만 라온이 이름으로 입금고요

#돼지집은날 #애기가늘은돈도있어요

## 나눔태그

###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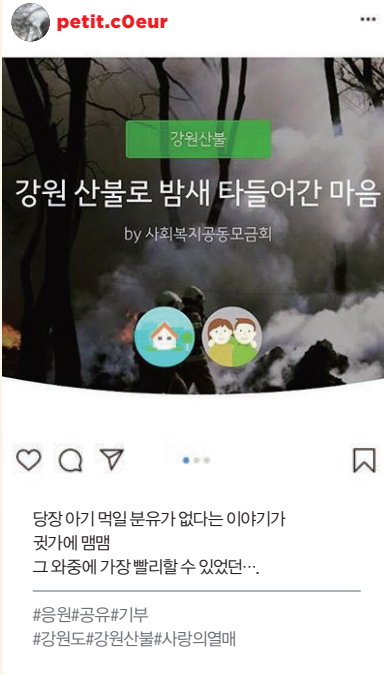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 필수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봉사#기부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당장 아기 먹일 부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컷가에 맴뎀 그와중에 가장 빨리할 수 있었던...

#응원#공유#기부  
#강원도#강원산불#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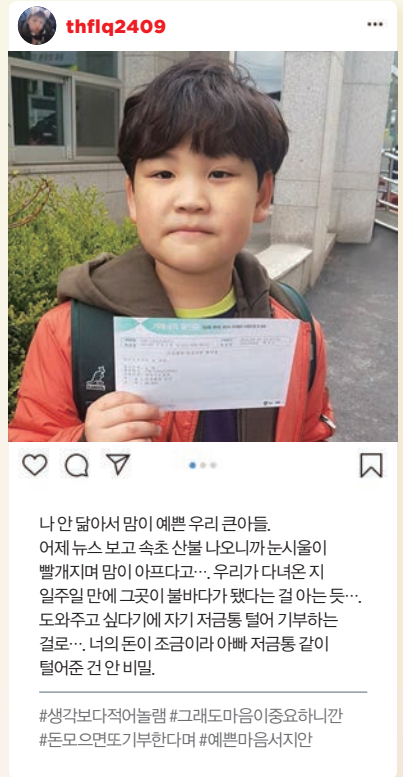


화재로 피해 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채라는 옷 기부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조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옷도 좋지만 쌀, 김치, 즉석식품 등 음식 종류와 식기, 휴지, 학용품, 화장품, 세제, 샴푸, 의약품 등도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적은 몇천 원 몇만 원의 금액이라도 작은 생필품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분명 많은 힘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동참해요! 꼭!

#속초산불



나안 님이서 맘이 예쁜 우리 큰아들. 어제 뉴스 보고 속초 산불 나오니까 눈시울이 빨개지며 맘이 아프다고... 우리가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그곳이 불바다가 됐다는 걸 아는 듯... 도와주고 싶다가에 자기 저금통 털어 기부하는 걸로... 너의 돈이 조금이라 아까 저금통 같이 털어준 건 안 비밀.

#생각보다적어놀렘 #그래도마음이중요하니깐 #돈모으면또기부한다며 #예쁜마음서지안



### 사랑의열매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도움을 드리고자 성금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응원, 공유하면 카카오키부대신기부

응원 공유 기부하기

화마라는 말은 직접 눈앞에서 보면 공포감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전 강릉에 큰 화마가 휩쓸고 갔던 그때 나도 강릉에서도 도로 위로 날아다니던 불덩어리들을 보았다. 도깨비마냥 미친 듯이 이리 튀고 저리 날아가 불고 번지고... 사탄이나 마귀가 저런 것일까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기억. 뉴스 보면서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고 두려웠다. 부디 절망적인 상황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같이해요, 같이해주세요, 같이가치.

#같이가치 #강원산불



# CONTENTS



## 사랑의열매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요



- 04 창의력이 커지는 문화 체험
- 06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위해
- 08 따뜻한 손길로 톡톡톡
- 09 배움으로 자라는 미래의 꿈나무



## 사랑의열매

vol. 145 2019 / 05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5월 / 통권 14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0 커버스토리

배우 정보석,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 14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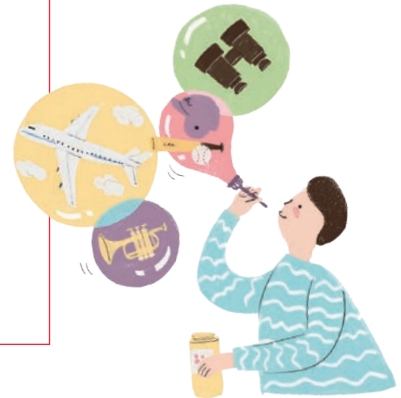
최악의 산불이 지나간 강원도

### 18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패밀리 아너 회원 이상춘 (주)현대강업 대표이사 가족

### 22 나눔 현장

배우 김보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돕기 성금 전달







## 24 나누는 사람들

W아너 소사이어티 리더들, 두 번째 기부금 전달

## 26 이달의 소식

2019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회의

## 28 땡큐 사랑의열매

“절대 빈곤 몰아낼 해법, 아프리카 또순이에 있습니다”

## 32 나의 ‘첫’사랑

아버지의 유산 기부하고 나눔 실천하는  
주종재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34 나눔 리포트

통계청 조사로 알아본 개인 기부 A to Z

## 36 장석주의 독서 처방전

지금, 아름다운 봄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 38 ‘먹을 수 있어 좋구나’

알고 보면 속도 모를 생선  
모르고 먹으면 다 맛있는 밴댕이

## 40 마음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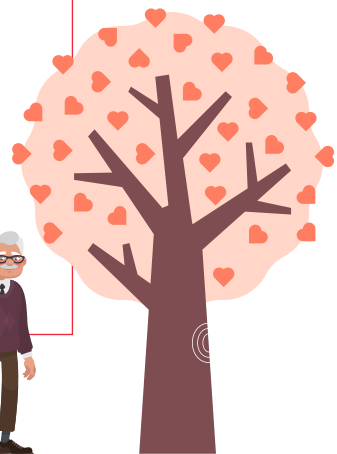
꽃은 사랑과 감사를 신고~

##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 55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56 독자 페이지



# 사랑의열매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요

‘어린이날’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정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러한 어린이날의 의미를 담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은 물론 정서적 지원과 문화생활 지원 등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 PART 1 — 창의력이 커지는 문화 체험

다채로운 문화 체험은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사랑의열매는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문화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건강한 한국인, 퓨전 국악 오케스트라인 양성 프로젝트 '소나기(소중한 나눔의 기적) 오케스트라'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기업 술아의 소나기 오케스트라는 다문화 및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에 소질 있는 다문화 및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해금, 대금, 플루트, 바이올린, 가야금 등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음악교육을 제공한다. 또 오디션을 통해 악기별 10명을 선정해 연합 퓨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정기 공연, 위문 공연 등 예술가의 꿈을 실현 가능케 한다.



### 2019 희망의친구들 무지개 축제 '우리 같이 놀아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제를 즐기며 신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에서 2003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세계 여러 놀이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감

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트랙구장에서 14개국 65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다. 5개국 일곱 가지 세계 어린이 놀이와 열두 가지 신체 놀이 및 감성 놀이 등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사했다.



1 정기 공연, 위문 공연 등 예술가 꿈을 펼치는 소나기 오케스트라



2 희망의친구들 '무지개 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 PART 2 —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위해

소외 계층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적은 편이다.  
사랑의열매는 아이들이 진로를 찾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우리나라 문화유산 탐방 & 나의 유산 만들기

서울·경기 지역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삼성 지정기탁으로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한다. 문화유산을 체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장 추천 등으로 선발한 저소득층 중학생 300명과 직장인·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멘토 80명이 모듬을 조성해 1년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3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1월까지 남한산성,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매달 새로운 문화유산을 탐방한다. 마지막 달에는 2박 3일간 자존감 캠프를 진행한다. 심리 상담사와 청소년 상담사, 미술 치료사가 투입되어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돕는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의식이 자리 잡도록 돕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혀주며,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해준다. 유네스코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이 끝나면 출석률, 멘토 평가, 과업 평가 등을 통해 25명을 선발해 해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 MINI INTERVIEW

#### 서수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2018년 멘티로 참여

“경주역사유적지구에 답사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실제로 본 체험대는 생각보다 멋있어서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문화유산을 실제로 보고 접하면서 딱딱하고 어렵게만 여기던 역사가 재밌게 다가왔어요. 멘토 선생님들께서 문화 해설을 쉽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프로그램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어 태국으로 해외 세계문화유산 탐방도 갔다 왔는데요,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이국적 풍경이 신기했어요.”

#### 홍사훈 대학생

2018년 문화 해설 멘토로 참여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 해설 봉사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곳도 있었고 처음 보는 유물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해 줘야 하니 부담감이 있었죠. 하지만 1년 장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 어느 때보다 여운이 크게 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아이들이 멘토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보여서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또한 저희 멘토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담아두려고 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1,2 우리나라 문화유산 탐방 &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티와 멘토들은 1년 동안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게 된다.



3 청소년아트스쿨에서는 공연 예술 진로 선택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 두산청소녀아트스쿨

두산의 지원을 받아 두산연강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새롭게 개편해 만든 문화 공헌 프로그램이다. 중부 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청소년(만 13~24세)에게 예술 체험과 함께 공연 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 극작·무대미술·연기 세 분야 예술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청소년의 예술 분야 진로 탐색을 구체화한다. 또한 두산아트센터 극장 투어를 진행해 학생들이 백스테이지를 둘러보고 실제 공연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 저소득 장애 가정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교육, 재능과 끼(예체능) 꿈 투자 사업 KB 두드림(DoDream)스타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 청소년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본인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청소년(14~20세)이 대상으로, 연 40명을 선발한다. 선발되면 꿈을 이룰 때까지 월 40만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 투자 후 6개월 단위로 중간 평가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투자를 지속할지, 보류 혹은 중단할지 결정한다.

“양궁을 시작하면서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할 때 두드림스타를 알았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경기체고 입학, 그리고 코오롱 엑스텐보이즈에 입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두드림에서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두드림스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드림스타를 통해 꿈을 이룬 김선우 장학생,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소속



4 꿈을 이룰 때까지 지원해주는 두드림스타



## PART 3 — 따뜻한 손길로 토닥토닥

사랑의열매는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살피주는 정서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 GS칼텍스 어린이들의 한 뼉 친구 '마음톡톡'

2013년부터 굿네이버스와 GS칼텍스가 함께 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다. 심리적·정서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위기 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 예술 집단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증진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2018년에는 전국 18개 좋은마음센터를 통해 918명이 참여했다. 마음톡톡 프로그램 치료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자아 존중감, 자기 성장 주도성, 자기표현 등 10개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참을 때가 많아요.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니 마음이 풀리고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 좋은마음센터 서울 동부 참여 아동

### 난치병 아동 대상 소원 성취를 통한 정서 지원 사업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만 3~18세 아동·청소년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의 프로그램이다. 소원 성취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투병 의지를 북돋운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진육이는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삶을 지탱해준 류현진 선수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고, 단장중후군을 앓는 지유는 재밌는 영상으로 자신을 웃게 해준 크리에이터 도티, 잠뜰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두 아이 모두 소원을 이루었다.

### 현대차그룹과 함께하는 탈북 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OK 라이프코칭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재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힘들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코칭을 통해 진로와 인생 설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OK 라이프코칭 지원을 받은 후 ‘엄마하고 저만 있는 줄 알았던 세상에 내 편이 있구나...’ 하는 감동으로 설레었습니다.”

— 양이연 학생(가명)



1 마음톡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 2 류현진 선수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룬 진육이



## PART 4 — 배움으로 자라는 미래의 꿈나무

열악한 교육 환경,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등 교육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3 수학이 재밌다는 것을 체험 활동을 통해 알려주는 수꿈이 수학버스



4 자신이 코딩한대로 자동차를 주행해 보는 현대케피코 주니어 스마트 자동차 공학교실

### 탈북·다문화 특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

수학문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수꿈이 수학버스는 버스에 수학 체험 교구를 설치한 이동형 수학 체험 박물관이자, 국내외 유일한 이동식 수학 체험 버스다. 탈북 학생 학교, 북한 접경 지역 학교, 도서 산간 지역 학교, 다문화 학교 등 수학교육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수학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버스 내부에는 아르키메데스 천칭,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 피타고라스 정리 퍼즐, 각도기 거울 등 수학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교구 40여 종이 구비되어 있다. 수학버스를 접한 아이들의 반응은 뜨겁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 수학버스에 설치된 교구들을 즐겁게 체험하며 수학적 재미를 느끼기 때문. 일선 선생님들에게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수학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버스 안에는 신기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여러 기구들을 설명해주셨다. 설명을 다 들은 후 기구를 사용해보았는데 너무 신기했다. (중략) 너무 재미있었다. 수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수학버스에 참여한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

### 현대케피코 ‘주니어 스마트 자동차 공학교실’

현대케피코와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는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IT와 전자 산업 분야에 대한 흥미와 비전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주니어 스마트 자동차 공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레고 EV3 키트를 활용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조별 대항 경진 대회를 개최해 정해진 트랙을 완주하기 위한 자동차 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해보는 등 고가의 코딩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일 캠프를 열어 배운 것을 심화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







## 배우 정보석,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 “나눔의 문을 열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연기파 배우이자 잉꼬부부로 소문난 배우 정보석.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빼닮은 두 아들을 사랑하며, 19개월 된 손녀딸도 빼놓을 수 없다.  
정보석의 사랑은 5월의 햇살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기도 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에게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들어봤다.

배우 정보석은 꽃미남 계보를 잇는 마스크에 배우로서의 오라, 생활 연기자의 근면함까지 갖췄다.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각별하다. 남몰래 선행을 해온 그는 요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패션 리더가 유행을 선도하듯 나눔 리더로 선행을 선도하고 싶다는 꿈을 꾀다. 나눔을 위한 일이라면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다. 대배우는 신인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 아내바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정남

정보석은 결혼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아내와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지금도 아내를 부를 때 누구 엄마라는 호칭 대신 “자기야”라거나 “민정 씨”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집안에서 자식보다 우리가 먼저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고 그다음이 너희라고. 가끔 와이프가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아이들한테 올인하려고 하면 제가 대뜸 ‘넌 내거야!’라고 하죠. 우리 삶 속에 아이가 있는 거니까요.”

이사를 앞두고 아내가 새 집을 짓는 데 열중했을 때에는 “왜 나하고 안 놀아주느냐”며 화를 냈을 정

도다. 아내 기민정 씨는 정보석이 <신돈> 출연 이후 ‘쥬얼리 정’이라는 별명을 얻자 새 집에 ‘쥬얼리 하우스’라는 센스 있는 명패를 달아 그를 달랠다. 캠퍼스 커플인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유명하다. 정보석은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 앞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당당하게 말하던 후배 기민정의 모습에 반해 8개월을 쫓아다녔고, 첫 데이트에 장인·장모의 결혼 승낙을 받아낼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 정보석은 그때 허락해주신게 너무 고마워서 혼자 되신 장인어른(4월 7일 작고)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장인어른이 참 양반이고 로맨틱트셨어요. 장모님 10년 병 수발을 혼자 다 하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골함을 안고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길로 집으로 모시고 왔죠.”

정보석은 데뷔 후 인터뷰에도 “여자 친구가 있다”고 당당하게 공개했고, 뒤이어 결혼도 했다. 기자와 연예 관계자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배우는 배우, 생활은 생활”이라 생각해 이런 결정이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그렇게 낮에는 연기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장을 보러 다니는 생활을 했다. 그는 결혼 초창기부터 아내에게 스케줄 관리와 경제적 부분을 모두 맡겼다. 아내가 매니저 역할

“저 사람을 통해 마음껏 울고 웃고 행복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을 대신한 것이다. 아내 기민정 씨는 매니저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 같은 과 후배이며 전인화·김희애와 동기인 아내는 배우 생활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감정적으로도 든든히 지켜주었다.

### 가까운 이웃부터 도와야겠다는 깨달음

정보석은 아들 둘을 키우며 ‘조기 유학’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웠다. 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족함은 없었지만 풍족하게 키우지도 않았다.

“첫째 고3 때 일주일 용돈을 5만 원만 줬어요. 학생 신분엔 맞게 준 거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가르침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성북동으로 이사하면서 한동네에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성북구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며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성북동이라는 동네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촌과 빈촌으로 나뉘어요. 한번은 캄보디아로 봉사를 다녀왔는데, 내가 캄보디아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가까운 이웃은 돕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때부터 이웃 주민

들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섰죠.”

이러한 아버지의 나눔 활동을 지켜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후원 단체에 용돈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정보석은 아들들의 기부를 보며 절반은 아빠가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반겼다. 나눔 활동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아이들과 생활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한다. 자의식 강한 둘째와 많이 부딪친 것이다.

“둘째가 저랑 많이 닮았거든요. 저의 삶은 모습을 아들에게서 발견하고 바꿔보려고 많이 싸웠죠. 근데 저에게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지켜봐줬다면 자기 삶을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저랑 싸우고 견제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자기 세대만의 문화가 있는데, 위 세대의 판단으로 재단하고 바꾸려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싶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대학에 간 뒤 정식으로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

그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며 “어떠한 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이젠 나눔에서도 소리가 나야

배우라 하면 외향적인 성격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배우로 연기를 하는 것과 생활인 정보석으로 사는 일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공개 행사도 자주 참여하지만, 이전에는 앞에 나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자신의 선행을 알리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알리는 순간 자신의 선의가 왜곡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도 가치가 있으니깐요.

누구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자신만의 삶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오래전에 한남동에 한국병원이라는 노인 전문 병원을 운영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 원장님과 좋은 일 한번 해보자며 의기투합해서 벌인 거죠.” 처음에는 병원을 알리기 위해 후배들과 탐골공원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해주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자 5,000명 이상의 노인을 돌봐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연말에 모금 기획을 했는데 같이 하던 분은 오픈하려고 했고, 저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기를 원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제 성격으로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동료故 김주승 씨한테 넘기고 빠졌는데, 결국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말았죠. 제 성격 때문에 좋은 일을 놓친 것 같아서 지금도 안타까워요.”

2014년 10월 고액 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전국 595호, 서울 63호)한 정보석은 처음에는 가입 제안을 기절했다. 조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병원의 일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선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데 제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기꺼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의 참여로 나눔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정보석은 다원문화복지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공개 행보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히 느낀다. “기존에 있던 야구단 지원이 끊겨서 걱정”이라며 담당자에게 발 벗고 나서서 복지회 지원을 당부하기도 한다. 야구단-힙합-연극단을 운영하는 다원문화복지회는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 인생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설립한 청소년 재단이다.

“아이들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랑 달라질 때 가장 뿌듯하죠. 처음에는 세상 불만을 모두 안고



있는 눈빛인데, 같이 야구 몇 번 하며 뒹굴면 세상 순한 얼굴이 돼요. 학교에서 적응 못 한 아이들을 ‘다 원’하기 때문에 다원이에요.

정보석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젊은 세대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오죠. 철저하게 기성세대와는 반대로 살았으니까. 의견 대립이 있다면 선배가 맞춰줘야죠. 우리는 많은 걸 겪었고, 그걸 수용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쥬얼리 정이라 불리는 남자. 보석처럼 빛나는 그의 행보로 우리 사회는 분명 어제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





### 최악의 산불이 지나간 강원도

##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화마가 활취고 간 자리는 처참하고 절망적이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눈물과 한숨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산불 다음날인 5일 중앙회 1억 원, 강원지회 2억 원 등 총 3억 원의 긴급지원 편성 배분을 결정했다.

또 집을 잃고 임시 시설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안정을 위해 약 58억 원의 성금을 30일에 전격 선지원했다.

산불 피해 특별모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4월 29일 기준 116억 1,000여만 원이 되었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더디지만 분명 다가오고 있다.



“

사랑의열매, 긴급지원 3억 원 편성 이어  
주택 복구 및 세입자 위한 58억 원 선지원,  
특별 모금에 동참하는  
개인과 기업 발길 끊이지 않아

”

### ‘최악의 산불’ 진화는 됐지만…

4월 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고성 산불은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속초 시내로 번졌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확산한 산불은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6일 정오가 되어서야 마침내 모든 산불을 진화했다.

화마가 활취고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처참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한 결과 강원도 산불의 산림 피해면적은 1,757헥타르(약 1,757만㎡)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넓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460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망 1명·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565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월 6일 정부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악의 산불 피해로 집을 잃고 농지와 축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눈물은 언제 마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산불처럼 타들어가고 있다.

### 사랑의열매에 이어지는 개인과 기업의 성금 릴레이

강원도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은 산불 직후인 5일 시작됐다. 주요 기업의 성금 기탁을 보면 SK그룹과 LG그룹, 포스코가 각 10억 원, GS그룹 5억 원, 롯데그룹이 4억 원, 아모레퍼시픽이 2억 원, 현대해상이 1억 원, LS가 2억 원을 피해 구호 기금으로 기탁했다. 또 한화 5억 원, 두산 2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2억 원을 기탁했다. 한 국가스공사·KCC·효성·경동제약·한국석유공사·HDC현대산업개발·세아그룹·대한제분에서 각 1억 원, 한국감정원과 삼정회계법인에서 각 5,000만 원, 에이스손해보험이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주요 개인 기부자로는 프로골퍼 배상문 아너가 5,500여만 원, 슈퍼

주니어 김희철이 3,000만 원, 소녀시대 유리가 2,000만 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유노윤호는 스케줄차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도 기부에 동참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가입한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 싯님이 500만 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이연복 세프가 2,000만 원, 지난해 11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방송인 전현무가 5,0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지난해 12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다니엘 헤니와 그의 소속사 에코글로벌그룹 및 소속배우들이 힘을 모아 성금 7,047만 원을 전달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배우 장근석은 4,80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고, 그의 한국 공식팬클럽 크리제이와 일본 공식팬클럽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4,500여만 원을 기부했다.

### 산불 이틀날 긴급지원 결정, 주택 복구 위한 신속한 58억 선지원

사랑의열매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5일 중앙회 1억 원, 강원지회 2억 원 등 총 3억 원의 긴급지원 편성 배분을 결정했다. 강원지회는 4개 피해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물품보다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들어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전용상품권(고성사랑상품권 등) 1억 3,00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지자체가 추천한 이재민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 4월 30일 사랑의열매는 가장 시급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성금에서 주택 피해자 및 세입자 약 800여 세대에 대한 선지원을 시행했다. 선지원 규모는 약 58억 원으로 국민성금의 절반 규모다. 남은 성금과 향후 기탁되는 성금도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피해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해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

#### 강원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 성금 기부 방법

사랑의열매에 강원 산불 구호를 위한 성금을 보내는 법은 세가지다. ARS를 활용하  
(채널A 모금 자막 송출)  
거나 계좌로 기부, 또는 카카오톡이 가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ARS 060-700-1122** (1통당 3,000원 기부)
- **계좌기부** 신한100-013-921256 국민 926101-01-000665  
농협 085-01-107391(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 301-0225-4109-61(예금주 강원도공동모금회)
- **카카오톡이 가치** together.kakao.com/  
fundraisings/64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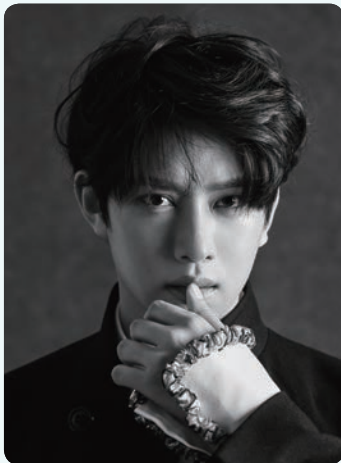


##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보내는 스타들의 위로 한마디



### 소녀시대 유리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도 잘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슈퍼주니어 김희철

“산불 진화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면서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 배우 장근석

“삶을 덮친 산불로 힘겨워하고 계신 피해 지역 이재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연복 셰프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신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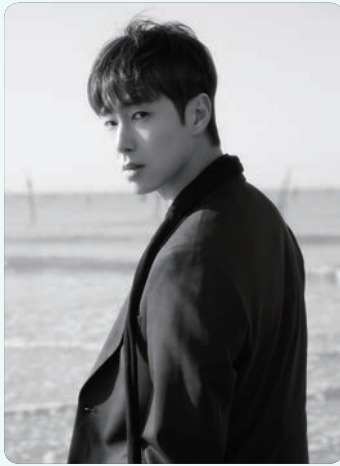


### 유튜브

###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

“실의에 빠져 있을 피해 주민들 생각에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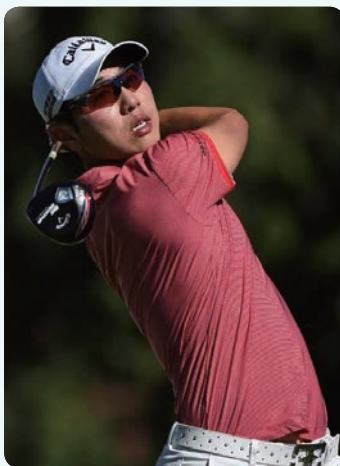
**동방신기 유노윤호**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삶의 공간을 잃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방송인 전현무**

“삶의 터전을 잃고 다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빠른 복구가 이뤄지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 #우리도 함께 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응원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강원 #함께합니다 해시태그로 하트를 담은 사진을 올리면 된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참여한 #강원도#함께합니다 해시태그 캠페인**

#강원  
#우리도 #함께합니다

누구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사랑의열매 직원들도 피해 지역 주민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원에 푸른 색이, 정든 터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마음 #하트를 담은 사진을 #강원 #함께합니다 해시태그로 공유해주세요  
'함께'의 힘을 믿습니다





패밀리아너 회원 이상춘 (주)현대강업 대표이사 가족

# 부모님 표정이 밝아지신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흔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상춘 아너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나누고 싶어진다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나눔 정신은 부모님을 감동시켜 함께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든 힘이였다.





경주의 대표적인 기부자를 꼽으라 하면 대부분 경주 최부잣집을 떠올릴 것이다. 나라의 독립과 후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전 재산을 기부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경주에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가 많다. 이상춘(50) 아녀와 그의 아버지 이충우(82) 아녀, 그리고 어머니 심정자(76) 아녀로 이루어진 패밀리 아너도 그중 하나다. 경주 (주)현대강업의 대표이사인 이상춘 아너는 2010년 경북 1호이자 경주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데 이어 경주에서 많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오다 자신의 부모까지 가입하게 만들었다. 나누면 행복하고 함께 나누면 그 행복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이상춘 아너. 그의 패밀리 아너 가입은 경북에서 세 번째다.

### 부족함이 오히려 나눔의 동력이 된다

이상춘 아너는 어린 시절 대가족으로 살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부모, 형제 등 총 13명에 이르는 대식구였다. 그때는 힘들기만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게 한 것 같다고 그는 회고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 부족한 것투성이였죠. 할아버지부터 부모님까지 항상 적으면 적은 대로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내가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부족하게 사는 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만이로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결심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첫 직장이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용 특수 소재를 공급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4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3평짜리 사무실에서 전화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마침 IMF 한파가 가시던 참이었어요.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생각 이상으로 사업이 잘됐어요. 월세 10만 원밖에 없던 제가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13억 원이라는 매출을



경주 지역 제1호 패밀리 아너가 된 아버지 이충우 씨, 어머니 심정자 씨, 그리고 이상춘 대표

올렸고, 3년 만에 100억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빈손으로 시작한 그를 응원하며 아무 대가 없이 전화기·소파·책상 등을 선물해준 분들, 힘든 고비를 겪을 때 격려의 말을 전해주던 분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부터 그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시키는 것

그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소하게나마 나눔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문득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제대로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둘까 봐 걱정도 됐고요. 그때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를 알게 됐고, 이거다 싶었지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자신의 순수한 나눔에 대한 열망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너로 가입한 후에도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회사 직원들과 봉사 활동을 다니며 기부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의 선행이 조용히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너 가입도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기업인이 모인 자리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기부의 장점과 나눔의 행복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다.

“나눔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것을 원위치시키는 것이죠. 다른 아너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우리가 한 것보다 분에 넘치게 받았으니 원래대로 돌려놓자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받은 고마움을 돌려줄 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 패밀리 아너로 거듭나며 기부 문화를 꽃피우다

이상춘 아너가 경북에서 1호 아너가 된 지 9년이 흘렀다. 지난 3월 문점숙 씨(김천 1호 아너 소사이어티 김무영 엠텍 대표 부인)가 100호로 가입했으며, 현재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는 103명에 이른다.

경북 지역에 아너 소사이어티의 싹을 틔운 그는 가족이 모두 아너에 가입하는 것으로 기부 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날 이상춘 아너의 부모님은 절에 기도하러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 이충우 씨가 이 대표에게 물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기부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진정성을 지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욱 커집니다.”

주겠다는 땅을 기부하자고 설득했을 때 기꺼이 응해준 것도 평소 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2015년 아버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후 어머니 심정자 씨도 그 정신에 공감해 경북 103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경북에서 세 번째, 경주에서는 1호로 패밀리 아너가 되었다. 패밀리 아너가 되어서 좋은 점은 부모님의 밝아진 표정이라고 말한다.

“저는 패밀리 아너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너 회원이 되면 나눔의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권유했는데 부모님이 기꺼이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입 후 부모님이 더 당당해지신 것 같고 표정도 밝아지신 것을 느낍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더 커지고 행복도 훨씬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진정성

이상춘 아너는 4년 전부터 게스트하우스 소셜재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수익을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운영하는 소셜재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의 것이 아니다.

“주변에 능력은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게스트하우스를 그들에게 위탁 관리하자는 생각을 했지요. 그 친구들이 소셜재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수익도 가져가는 구조예요. 자신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소셜재를 방문한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은 황리단길로 유명한 황남동에 1호점과 2호점이 들어서 있다. 조만간 교촌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은



1 소셜재 마당에는 1,000년 된 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 게스트하우스 소셜재는 문을 연 2016년부터 착한가게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 예술 체험과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연할 무대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방문객에게 체험 강의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땀 흘리는 봉사야말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또 다른 가치를 지녔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눔에 대한 철학이 깊어가는 그가 앞으로 어떤 나눔의 세계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



### 착한가게 소설재

'삶의 작은 이야기를 담아낸 한옥'이라는 뜻을 담은 소설재는 황리단길로 유명한 경주시 침성대 옆길에 1호점과 2호점이 자리한다. 1호점은 한옥 양식을 그대로 접목해 신축했고, 2호점은 전통 한옥을 리모델링해 전통 한옥과 현대 시설의 장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잘 가꾼 정원에는 오래전부터 자리한 우물이 그 모습 그대로 고객을 맞이하고, 방마다 화장실 검욕실을 구비했으며 냉난방 시설을 잘 갖춰 현대인이 한옥 체험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2인실, 4인실, 6인실 등으로 객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입구에는 카페를 운영해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침성대와 대릉원, 황룡사지 등 관광지와 멀지 않고 경주역과 경주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까워 이동하기도 용이하다.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예약은 필수다.

문의 070-7357-7412, 010-7644-7412

홈페이지 [www.soseoljae.com](http://www.soseoljae.com)





배우 김보성,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돕기 성금 전달

##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으~리!”

배우 김보성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그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을 꿈꾼다고 했다. 나눔의 슈퍼맨 말이다.



김보성은 그동안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와 가족들이 척수성근 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을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펼쳐온 '스핀라자-모두에게 기적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환우들을 도왔다.

“지인의 조카가 SMA 환자여서 알게 됐어요. 이 병의 유일한 치료제가 스핀라자라는 주사인데, 이게 한 대당 1억 원이 넘어요. 최소 여섯 번은 맞아야 한대요. 그럼 6억 원이 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환우와 가족에게 치료제의 보험 적용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뭐라도 해 보자 싶었죠.”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소감을 말하는 김보성은 그야말로 의리의 사나이 그 자체였다.

### 기부금을 전하던 날 기적같은 소식

척수성근위축증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댄 김보성의 정성이 어딘가에 닿은 걸까. 4월 8일 기부금 전달식이 있던 날, 척수성근 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발표가 나온 것. 기부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사랑의열매의 제안으로 전달식 날 짜가 정해진 만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기부금 전달식이 있는 오늘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는 발표를 해 정말 기쁩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할지, 저도 벅차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의리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을 통과시켜주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의리!”

의리를 외치며 힘차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김보성은 기쁨에 겨워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보성의 아내 박지원 씨도 남



김보성은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소감을 말하는 배우 김보성과 아내 박지원 씨.



편의 모습에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다. 김보성은 결혼 전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면서 그런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지 아내 박지원 씨에게 묻곤 했다고.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다면, 그 이후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다면서 약속해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약속 안 해주면 결혼 못 한다고요.(웃음)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예요. 어려운 이웃들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 아픈 아이들을 위한 남편의 꿈

김보성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은 김보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수성근위축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심장병, 소아암 등 여러 난치성 질병으로 아픈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쓰라립니다. 제가 슈퍼맨이 돼 다 닳게 해주고 싶고, 어려운 일 다 해결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슈퍼맨만큼 나놈의 의리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 시켜야겠다 다짐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지원 씨는 “남편은 진짜 슈퍼맨이 되어 아픈 아이들 병을 치료해주는 꿈을 꾸기도 했다”며 김보성의 진심을 살짝 전해주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커져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보성은 전달식에 함께한 아들과 힘차게 “나놈의 의리”를 선창해 전달식장은 의리의 메아리로 가득 찼다. 🍀

## W아너소사이어티 리더들, 두 번째 기부금 전달

# 여성이 더욱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의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 기부금을 전달하며 여성 문제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열정 가득했던 현장을 공개한다.

###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전달

W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중 여성 회원의 모임이다. 여성이 이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 어간다는 취지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전국 여성 아너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지회별 대표인 W아너 소사이어티 리더(이하 W아너 리더)들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등 40여 명이 지난 4월

3일 서울 동작구의 ‘카페 나무’에 모였다.

먼저 W아너 리더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조성한 W행복기금 200만 원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 전달했다.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기부금 전달이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법인 ‘W-ing’에 33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으로 주방용품을 구매해 소셜 다이닝·치유밥상 ‘비덕살롱’이



W행복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왼쪽부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윤용내 대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W아너 이민재 총리더, W아너 중앙희 송경애 리더.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풀뿌리 여성 단체다. 모임이 열린 카페 나무를 운영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쉼터를 제공하고, 먹을거리와 생필품·교통비 지원은 물론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상담과 여성주의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W아너 이민재 총리더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어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과 리더 여러분이 있어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번 기부금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 여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열띤 논의

이날 W아너 리더 회의가 함께 진행됐다. 이민재 총리더를 비롯해 많은 리더가 W아너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현재 416명(2019년 3월 기준)인 전국 여성 회원을 500호까지 유치하는 ‘500인의 프로젝트’(부제 오매불망 500호)를 제안했다. 여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용, 봉사 활동 현장 스터디 등 복지 현장 참여형 기부, W행복기금 마련 등 폭넓게 논의되었다.

W아너 중앙회 송경애 리더는 기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기념일 기부를 발표했다. 송경애 리더는 지난해 12월 20일 둘째 딸의 스물다섯 살 생일에 맞춰 2,018만 1,220원을 기부했다. “기념일 기부는 오랫동안 행복과 뿌듯함이 남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며 기념일 기부에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W아너를 중심으로 여성이 처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자 위풍당당한 여성의 힘을 보여준 W아너 리더들,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

## INTERVIEW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잘 발굴해 많은 분에게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W아너 소사이어티 총리더 이민재 (주)엠스 회장  
(前여성경제인협회장)**



**전달식을 마친 소감은 어떠신지요?**

이런 행사를 마칠 때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비해 제가 하는 나눔은 부족하게 느껴져 창피할 정도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많은 W아너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데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 기부금을 전달하셨어요.**  
청소년 시기는 걱정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가정 폭력으로 집에서 나온 아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특히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동작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여성 단체인 만큼 여성 문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와 뜻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아직은 W아너가 발걸음을 땀 정도라서 나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시급합니다. 두 번의 기부금 전달식이 모두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까지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W아너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운용내 대표가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2 W아너 리더들은 기분을 나타내는 카드를 뽑은 후 이야기를 나눴다.

2019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회의 개최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한 영향력'

개인 고액 기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일곱 번째 회원대표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지난달 18일, 부산시 영도구 목장원에서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의 일곱 번째 회원대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각 지역의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이번 부산 대표 회의에서는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인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과 부산 지역 대표인 (주)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 등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회 20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 특별 게스트로 세계공동모금회(UWW) 국제 네트워크 조세 페라오(Jose Ferrao)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회원대표 회의에서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도약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원 대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등을 공유했다.

###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으로

대표 회의의 첫 포문을 연 최신원 총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기업 중심의 기부 문화를 개인 기부 문화로 확산시키며, 단순 고액 기부 모델이 아닌 우리 사회 나눔의 변화 중심에 서서 개인 고액 기부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개인 기부 문화 정착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회원 수가 2,100여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져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아너 소사이어티의 미래 비전을 제안했다.

한국의 기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UWW(United Way Worldwide) 국제 네트워크 조세 페라오 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경의를 표했다. UWW는 연간 약 5조 원을 모금하는 글로벌 자선 단체다. 조세 대표는 “한국에서 고액 기부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부를 이어나가는 데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의 공동모금회는 국제 네트워크 안에서 리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저력이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밝혔다.



2



3



###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회의 개최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회 변화에 따른 다채로운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면서 “2019년도 전략 과제를 실행하는 첫해인 만큼 보다 더 나눔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한 박성진 부산 지역 대표는 “부산에서 뜻 깊은 행사를 치르게 돼 더없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며 “기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수혜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아너 소사이어티의 개인 기부 활동은 하나의 계몽운동이자 혁신 운동이라 생각하고, 그 중심에서 부산이 적극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부산을 마음껏 즐겨달라”는 인사말로 큰 박수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개인 고액 기부와 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11명을 동시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시켜 아너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이 최신원 총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최신원 총대표는 “나눔은 곧 행복”이라며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보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 회원대표 회의 개최는 울산으로 결정됐다. 🍀

1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를 맡고 있는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2 이번 부산 대표 회의를 총괄한 부산 지역 대표 박성진 (주)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

3 감사패를 받은 신정택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



국경없는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 “절대 빈곤 몰아낼 해법, 아프리카 또순이에 있습니다”

국경없는교육가회는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표로 설립한 단체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모델로 삼아 국외 교육 원조를 전파하는 국내 첫 교육 NGO다. 교육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사하라사막 서쪽에 있는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김기석(71) 대표는 이곳에서 '코빌'이라 불린다. '코리아 빌 클린턴'이라는 뜻이다. 큰 키에 은발을 휘날리는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미국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한 부르키나파소 명예영사로 임명된 김기석 대표는 이름조차 낯선 이곳을 제2의 고향 삼아 1년에도 3~4개월씩 머무른다.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이자 가나안농군학교 개척자 김용기 선생의 둘째 사위인 김기석 대표는 2007년 국경없는교육가회(이하 EWB)를 창립하고 은퇴 후에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에 힘쓰고 있다.

### ‘여성’이라는 희망의 엔진

회교도 가정이 많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여성의 삶이 참 비참하다. 가부장적 질서에 짓눌려 여성의 말이 가정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정도다. 이곳에서는 아내가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은 노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기석 대표는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여성에게 희망을 걸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 ‘토순이’라고 부르는 악



장부를 기입하는 것도 교육과정 중 하나다.



양계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서 양계 교육은 물론 협동조합 조합원 회의도 이루어진다.

바리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 쓰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실제 가장이며 집안을 꾸려나가는 엔진은 여성입니다.”

김기석 대표는 특히 엄마들을 신뢰했다. 남자들은 양계 100마리의 자금을 지원하면 돈을 따로 챙기거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지만, 엄마들은 닭을 키우고 사료와 백신을 구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그렇게 번 돈은 곧바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김 대표는 12년의 경험으로 빈곤 탈출의 열쇠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엄마와 누나들은 확실하다. 이들과 함께 일하자”라고 외친다.

EWB는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글을 깨우친 여성에게 소액의 자금을 융자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이 프로그램을 ‘가파(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GAPA) 프로젝트’라 부른다. 우리말 ‘값야’의 발음인 ‘가파’는 원조받던 우리가 이제 ‘값’ 위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을 담았다. 가파는 문해 교육-직업 기술 훈련-경제 교육-소액 대출을 담은 통합형 빈곤 퇴치 프로세스다. 현지 극빈층 문맹 여성에게 읽고 쓰는 법과 창업 기술을 가르치고 소액 자금을 융자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한 가구당 최대 100달러씩 빌려주는데, 대출금 회수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이다. 단순 원조에 그치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

쳐 자립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1,500명이 글을, 다른 1,500명이 농업 기술을 배웠어요. 또 1,000여 명에게 소액을 빌려줬는데 95%가 넘는 회수율로 그 돈을 계속 돌릴 수 있었지요. 교육의 힘이 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파의 문해 교육 활동은 2014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수여하는 세종문해상(Literacy Prize)을 한국 기관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청년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빈곤 투쟁 역군’으로 불리는 EWB의 15명 간사들(주로 여성)은 지난 10여 년간 현지 파견과 실무를 담당하며 헌신적으로 부르키나파소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했다.

### 양계 교육 사업으로 ‘잘살아보세!’

부르키나파소는 6·25전쟁 직후 한국과 같다. 먼지가 훑날리는 흙바닥에 먹을 것은 물론 산업 기반과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기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손쉽게 경제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양계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몸집이 작은 닭을 기르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과 아이들 몫으로 여기는 데다 다른 축산업(소, 돼지)에 비해 초기 투입 자본이 적고 사육 기간이 짧아 현금화가 용이하다. 물론 닭과 달걀로 아이들에게 풍부한 단백질원이 되어주기도 한다. 부르키나파소는 이슬람과 기독교, 토착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로 소고기



아이를 안고 읽고 교육받으러 나온 여성들.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다.

나 돼지고기는 종교에 따라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닭고기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육류로 폭넓은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양계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한 빌 게이츠 역시 빈곤 퇴치를 위해 2016년 10만 마리의 닭을 아프리카에 기부하기도 했다. EWB의 양계 사업이 빌 게이츠와 다른 점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양계 전문가와 수의사를 초빙해 사료부터 백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법을 전수한다.

“농업을 잘해야 모두가 잘 먹고 사는데, 그 시작이 양계예요. EWB는 양계 토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하고 떠난 빌 게이츠보다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요.(웃음)”

협동조합 결성도 양계 교육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 결정이 주로 연장자의 의견대로 이루어지는데, 협동조합 결성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견 조율이 가능해진 것이다.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일을 조합원의 토론으로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출자금을 비양계 가정의 초기 지원금이나 재해를 당한 가정에 사용하자는 의사 결정을 하기도 했다. 사료나 백신을 공동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

“양계 사업을 열심히 해도 시장의 불안 때문에



양계 기술의 핵심을 담은 교재는 한국 양계 기술과 부르키나파소의 현지 상황을 반영해 제작했다.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양계 사업은 큰 양계장과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듯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협동조합입니다. 다투기려 뭉쳐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죠.”

경제적 자립으로 얻는 가장 긍정적 효과는 참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세 지역에서 2017년에 나눔과꿈 양계 사업에 참여한 이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껏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양계를 할 지식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양계업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양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계사에서 보내지요.”

- 위아 웬드콩타(여, 35)

김기석 대표는 남녀와 좌·우익, 위아래, 있는자와 없는자 사이의 관계를 바꿀 때 경제적 빈곤과 생각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육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 인격까지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지만 폭력과 파괴 없이 정의롭게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



양계 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100마리의 병아리를 지원받는다.

## INTERVIEW

### “교육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

#### 국경없는교육가회 김기석 대표



#### 2017년 나눔과꿈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지원받은 예산으로 3개 마을의 46가구를 포용할 수 있었는데, 양계 사업으로 1가구당 병아리 100마리와 백신을 지원했지요. 그동안 소액 대출 형식으로 진행한 사업이지만, 나눔과꿈의 예산 지원으로 선정 가정에는 확실한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죠.

**교육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교육은 곧 생활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시간에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글자를 알고 숫자를 익혀야 합니다. 한번은 사업에 참여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막막했는데 코빌을 만나서 글을 읽고 돈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섭섭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서 만족합니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어요. 교육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어떤 차별이나 잘못된 관행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점을 꼽는다면?**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언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화나 물리적 환경 차이도 배우고 익히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와 관계 맺고 일할 사람, 돈을 떼먹지 않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틀림없이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 우수 수행 기관으로 받은 상금(2,000만 원)을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2017년에 진행한 나눔과꿈 단기 사업이 종료되고, 2019~2021년에는 장기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2018년 예산이 붕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계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일정 사이클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상금으로 2018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겐 참 단비 같은 자금이었지요. 사업 이외의 목적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모금 운동은?** 우리는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빈곤 포르노’를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빈곤 포르노를 이용하면 돈이 들어오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인격을 팔지 말자’, ‘작게 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 제가 합니다”

- 아버지의 유산 기부하고 나눔 실천하는  
주종재 전복 아너(전군산대학교 교수)



“사랑의열매죠? 기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깜짝 놀랐다. 더욱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해서 전화하니 말이다. 하지만 전화했을 때 나는 이미 혼자 기부에 관한 모든 심적 갈등의 풍랑을 다 겪은 후라 놀라는 직원과 달리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다. 기부한 돈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었다. 여든네 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셨다. 드라마틱한 자수성가 스토리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저 그 시대 어른들이 그렇듯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며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아오셨을 뿐이다. 얼마간의 재산이 모였다고 해도 흥청망청 쓰는 법이 없으셨다. 먹고살 만해졌어도 어머니는 때 지난 잡지책을 가져다 봉투를 만들어 팔 정도로 알뜰하셨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도 이유 없이 돈을 쓰시지 않았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으며 집안 분위기는 늘 정갈하고 검소했다.



## 내가 못한 좋은 일, 내가 하렘

알뜰하신 부모님은 인정도 많으셨다. 아버지는 길거리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 하였고, 어머니는 거지들이 있으면 씻기고 낡은 아버지 옷을 꺼내 입혀 보내시곤 하셨다. 여기까지 가 옛날 분이시던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였다. 몇만 원이라도 더 성금함에 넣고 싶어도 부끄러워 나서질 못하셨다.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은 못 하시지만 아들인 나에겐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마음을 숨기는 법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생을 사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얼마간의 유산을 받았다. 직접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변 정리가 끝나고 유산을 받은 날이 목요일이었다.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니 마음이 요동을 쳤다. 나도 사람인지라 기부하기까지 백 번, 천 번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못한 좋은 일, 네가 해다오”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기는 번민의 파도는 없었다. 그렇게 마음의 격랑을 겪고 월요일 9시 출근하자마자 사랑의열매에 전화를 했다.

“지금 기부하겠습니다.”

## 한 번만 속아보실래요?

뻔한 말이지만 기부를 하면 너무 행복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 나는 사랑의열매 직원을 만나 설명을 듣고 기부금을 바로 이체했다. 그 순간 폭풍이 몰아치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평온해졌고, 더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들었다. 그 평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으로 바뀌었고, 나는 점점 행복감에 중독되어갔다.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도와줄 곳은 없는지 찾게 됐다. 전부터 크고 작은 기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은 보내왔지만, 나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사랑의열매에 아버지의 유산을 기부하면서부터다. 이후 나는 내가 재직하던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대학 인근 어려운 마을 주민 300여 명에게 전기장판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드렸다. 또 어려운 모자 가족 복지시설과 은퇴한 후 한센병 환자를 도우며 살아가시는 수녀님들을 돕기도 했고, 최근에는 어머님과 상의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시립노인요양원에 전동 침대 10여 대를 어머니 이름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남을 돕는 일, 나의 아버지처럼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한 번만 속아보라는 말을 건네곤 한다.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시작해보라고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 자자, 한 번만 속아보실래요? ❀



아버지의 유산을 기부한 주종재 아네(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통계청 조사로 알아본 개인 기부 A to Z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5월 나눔 리포트에서는 2011~2017년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개인 현금 기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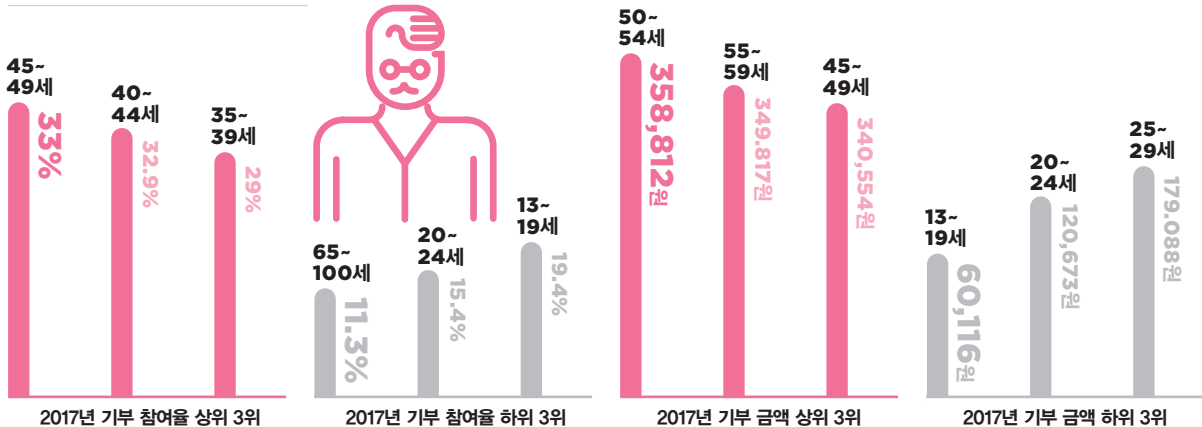
## 기부 참여는 줄고, 평균 기부 금액은 증가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기부함	34.5%	32.8%	26.9%	23.3%
기부 안 함	65.4%	67.1%	73%	76.7%

2011년 현금 기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였으나 이후 32.8%(2013년), 26.9%(2015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은 23.3%만이 기부에 참여했다고 대답해 2011년에 비해 11.2%가 감소했다. 실제 기부를 했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기부 금액을 물었다. 2011년 167,266원, 2013년 199,103원, 2015년 310,284원으로 평균 기부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7년에는 291,321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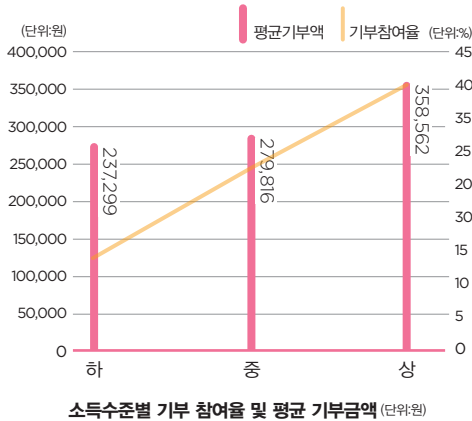
## 전 연령층 기부 참여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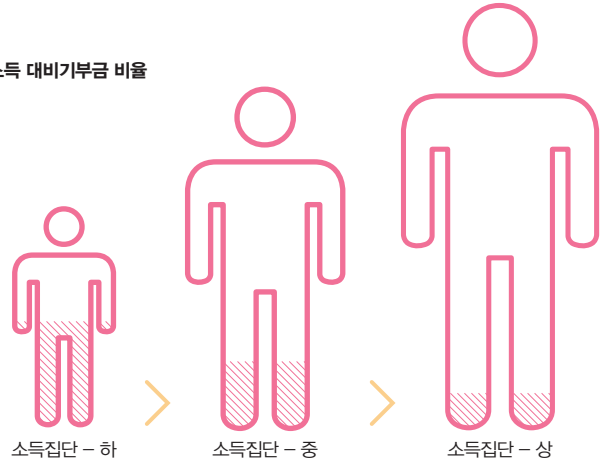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는 연령층은 45~49세로 2017년 33%였다. 해당 연령대는 전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인 그룹이었으나, 2011년 46.3%로 조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7년 평균적으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50~54세였고 평균 기부 금액은 358,812원이었다. 13~19세 청소년 연령층의 기부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40.3%였으나 2017년에는 19.4%에 불과했다. 20~24세의 경우, 2011~2015년 기부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연령층에서 평균 기부 금액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의 경우(312,944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 저소득 기부 집단이 소득 대비 기부를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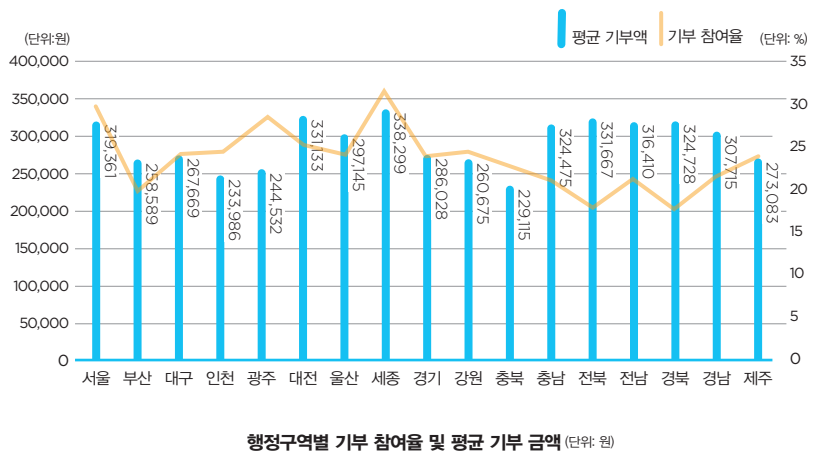
###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



2017년 소득수준별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통해 개인 기부 행동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1%를 구성하는 소득 하위 그룹의 경우 14.8%가 기부에 참여했으며, 중위 그룹은 27.7%, 상위 그룹은 39.7%가 기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소득 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를 했다고 말한 기부 집단 기준으로 2017년 평균 기부 금액은 소득 하위 그룹 약 23만 7,000원, 중위 그룹 약 27만 9,000원이었다. 상위 그룹의 경우 평균 35만 8,000원 정도 기부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통해 본 결과는 다소 상이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기부금 비율값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득 집단을 3개로 구분할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득 구간 하(1~4분위)의 기부 집단은 평균 1.56%, 소득 중(5~7분위)의 기부 집단은 평균 0.73%, 소득 상(8~10분위)의 기부 집단은 평균 0.62%를 기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지역별 기부 참여

2017년 기부 참여율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31.8%)이며, 서울(30.4%), 광주(28.2%) 순이었다. 반면 기부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17.4%)이었고, 전북 (17.9%), 부산(19.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의 경우는 기부율이 낮았던 충남, 전북, 전남 등지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 **나눔문화연구소**는 지난 2005년 '나눔정보연구센터'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에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조사 연구, 정보 분석, 교류 협력을 진행하는 전문 연구 기관이다. 나눔 문화 기반 구축, 기부 환경 및 제도 분석, 배분 사업 성과 평가, 지역사회 복지 의제 연구 등의 주제로 현재까지 총 120건이 넘는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나눔연구소 블로그([www.nanumresearch.or.kr](http://www.nanumresearch.or.kr))에서 나눔 이슈, 나눔 통계 등 나눔 관련 연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 아름다운 봄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올리버 색스 - 고맙습니다



봄이 이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찍 피었던 매화가 지고, 생강꽃과 목련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다투어 피어나며, 벚꽃이 만개해 천지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의 혹한을 견디며 만개한 봄꽃들은 그야말로 자연의 기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생명을 받고 봄날의 기적과 마주한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기가 있는 육신과 피, 쉬지 않고 펄떡이는 심장과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강한 폐를 갖고 이 청명한 봄날에 살아 있음의 기쁨이 생생하지 않다면 그건 불행한 사태겠지요.

## 마지막 작별 인사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화사한 봄날 자꾸 피로하다고 호소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딱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세상만사가 덧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고갈된 채로 피로가 쌓였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삶은 고해(苦海)이고, 하루하루는 노역(勞役)입니다. 어느 날 피로가 우리를 덮칩니다. 피로란 무엇일까요? 피로는 살면서 겪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노동과 수고로 인한 육체의 고갈과 함께 겪는 경직과 마비이지요. 많은 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피로는 질병입니다. 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방기, 스스로에게 버려지는 사태, 느슨하게 다가와 우리를 덮치는 죽음입니다.

신경생리학자 올리버 섉스(Oliver Sacks)의 <고맙습니다>를 읽었습니다. 올리버 섉스는 2014년 12월에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낙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1마일씩 수영을 즐겼습니다만 암세포가 전이되어 2015년 8월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는 그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세상과의 작별을 예감하고 죽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올리버 섉스는 생의 통찰이 빛나는 이 책에서 “저마다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하고, 자기만의 길을 찾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자기만의 죽음을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유전적, 신경학적—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친다면 당신의 마지막 작별의 말은 무엇일까요? 올리버 섉스의 마지막 말은 “고맙습니다”였습니다. 그의 작별 인사는 이 세상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이었습니다.

### 인생이 보내는 위기 신호

올리버 섉스는 1933년 런던 북서부의 독실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청소년기까지 유대교 신자의 의례적 의무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란 그의 어머니는 “혐오스러운 것,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이해를 받지 못한 것이지요. 올리버 섉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 칼리지에서 의학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와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신경정신과 임상 교수와 신경정신과 의사로 활약하면서 인간의 뇌와 정신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와 사례를 담은 책들을 써서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글로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이를 먹으며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

니다. 그는 누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올리버 섉스는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삶이 별로 없음을 깨달으면서 자기 마음 속에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에 대한 감각이 삶의 덧없음에 대한 감각과 뿔 수 없이 얽혀”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책을 쓰며 보낸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며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그가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고맙습니다”라고 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멋진 경험도, 끔찍한 경험도 두루 겪었겠지요. 파란과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이라면 좋겠지만 인생은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고, 크고 작은 근심으로 얼룩져 있지요.

피로는 인생 향해 중 만나는 암초입니다. 피로는 인생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입니다. 자칫하면 암초에 배가 좌초되고 인생 향해가 예기치 않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겠지요. 이 화사한 봄날 피로로 인해 우울증을 앓는 당신에게 올리버 섉스의 <고맙습니다>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세요.

“고맙습니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기쁨과 충만감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한 고마운 마음은 솟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생에 대한 새로운 의욕, 살아 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이 봄날의 살아 있음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노동자다.



작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밴댕이회

### 알고 보면 속도 모를 생선

## 모르고 먹으면 다 맛있는 밴댕이

속았다. 여태 나는 그맛에 속았다.  
뼈째 얇게 썰어낸 회는 보드랍고 '꼬슌다'.  
참기름 장에 찍어 먹으면 살살 녹아  
금주(禁酒)의 맹세가 위태롭다. 봄바람에  
하루 말려 숯불에 구우면 기름기가 돈다.  
노릇할 때 씹어 먹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밥도독은 따로 있다. 내장으로든 젓갈을  
담고, 말려서는 국물을 낸다.  
5월에는 밴댕이여야 한다.

### 넌 이름이 도대체 뭐니?

강화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쉬어 갈 겸  
선수포구 밴댕이마을에 짐을 풀었다. 밴댕이  
회를 한 접시 시키고 수족관 여기저기를 둘러  
보던 형님이 한마디 했다. "이상하다. 이거 밴  
댕이 아닌데 반디인데 반디(반지), 송어라고 송  
어!" "행님 뭐 소리 하는 거요? 송어는 연어같  
이 생겼지. 양식 송어 안 먹어봤소? 속이 별걸  
지!" "아니라니까. 우리 동네(군산)에선 초고추  
장 넣고 무쳐서 막걸리에다 탁!~ 반지회 하면  
다 알아. 내가 그걸 못 알아보겠냐" "그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친장 아저씨한테 물어봅시다."  
"사장님 이게 반지입니까? 밴댕이입니까?" 나  
는 지금도 사장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서는 "밴댕이면 어떻게 반  
지면 어떻게. 맛있으면 됐지" 하고선 주방으로  
사라지셨다. 머쓱해진 우리는 갑자기 밴댕이  
소갈딱지가 된 기분이었다.

가을에 전어가 있다면 완전한 봄 5월엔 밴댕이



밴댕이를 말린 디포리로 낸 육수는 멸치 육수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을 낸다.



가 있다. 횡집에선 산란기에 접어든 5~6월의 밴댕이가 맛이 좋아 1년 치를 잡아 급랭 보관한다고 한다. 전라도 화순에 가면 화순군청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문난 한정식 한 상 차림을 내는 집이 많다. 그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 중 하나가 '송어젓(밴댕이젓)'이다. 이쯤 되면 명칭은 의미가 없어진다. 송어건 반지건 밴댕이건 맛 있으면 장땡이지만 그래도 알고 먹으면 식(食)이 즐겁다.

반지는 <자산어보>, 서유구의 <난호어목지> 같은 기록을 살펴도 사정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지는 해도어(海鮫魚), 속명으론 소어(蘇魚), 반당어(伴倘漁)라고도 불렀다. 필시 반당어가 밴댕이가 되었을 것만 같다. 경기도 안산엔 소어소(蘇魚所)까지 두어 임금께 부지런히 진상한 생선이 밴댕이다. 특히 밴댕이젓은 어란과 필적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그렇다면 대체 밴댕이 맛이 어떻게 그 난리였을까?

요리사의 관점에서 보면 밴댕이는 재료로서 수준 높은 생선이다. 성질이 급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는다. 손질해서 포를 뜨면 손바닥 크기만 한 살점이 나오는데 감질나서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더 맛있다. 포를 뜬 생선살이 냉장고에서 저온 숙

성되면 감칠맛이 더욱 폭발한다. 따라서 밴댕이회는 허겁지겁 먹어선 안 된다.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어야 한다. 횡집에 못 미치는 작은 밴댕이는 소금에 절여져 젓갈이 된다. 무가 들어간 김치에 넣으면 익었을 때 국물이 시원한 맛을 낸다. 술을 뿌려 어느 정도 삭힌 밴댕이젓에 고추, 대파, 마늘 등 갖은양념을 넣고 무쳐내면 필자가 갈치젓, 칠게젓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된다. 밴댕이도 아는 만큼 맛있게 마련이다.

### 누구 집 국물 맛이 이리도 좋을까

국물이 끝내주는 집은 다 맛있다. 국물이 맛있는 집은 김치찌개도 된장국도 콩나물국도 맛있고, 국물이 기가 막힌 업장은 국수, 우동, 어묵, 전골 등이 다 맛있다. 경상도에선 어린 밴댕이 말린 것을 디포리라고 부른다. 일반 가정집이야 좋은 국물용 멸치를 구입할 줄 아는 안목과 지갑을 열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업장은 좀 더 섬세하고 고급진 국물 맛이 필요하다. 그 비법이 바로 디포리이다. 반지는 멸치과이지만 밴댕이는 청어과이다. 과메기 특유의 향을 떠올리면 된다. 물론 향은 훨씬 더 굴뚝굴하고 은은하다. 하지만 멸치가 진하고 시원한 맛을 낸다면 한 줌의 디포리는 향을 더하고, 다양한 산미가 난다. 사실 밴댕이만 놓고 보면 조연극에도 못 들 생선이다. 하지만 5월엔 단막극 주인공이라도 시켜주어야 한다. 산지가 아니면 사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바다의 맛은 제한적이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생선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꾸준히 알게 모르게 밥상을 지켜준 생선이다. 오랜만에 밀 국물을 낸다. 거기에 칼국수를 넣고 애호박과 당근채, 양파도 조금 넣어서 끓인다. 고추와 파, 마늘을 넣은 갖가지 곁들이면 사람들은 날보고 칼국수 달인이라 하겠지만, 사실 나는 밴댕이 맛을 남모르게 훑쳐다 쓴 국물 달인이다. 🍷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흥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 꽃은 사랑과 감사를 신고~

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  
행사도 많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곳도 많은 5월,  
소중한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보자. 사랑스러운 향기와 꽃이 지닌 의미로  
진심을 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변덕 속에 감춰진  
예쁜 진심 수국

꽃말 진심, 변덕, 처녀의 꿈



개화 시기가 6~7월로 본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다. 재밌는 사실은 수국의 꽃 색깔은 처음부터 종해진 것이 아니라 토양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색으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띤다. 토양에 첨가제를 넣으면 꽃 색을 바꿀 수도 있다. 조금만 건조해도 금세 시들어버리지만, 물속에 담가두면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 꽃말처럼 '변덕'을 부리지만, 곧 예쁜 꽃을 내밀며 '진심'을 보이는 셈이다.

크고 탐스럽게  
피어나는 작약

꽃말 수줍음



꽃이 크고 탐스러우며 수십 겹의 꽃잎이 활짝 열린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꽃말은 화려한 모습과 달리 반전 매력이 있다. 소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작약꽃 속에 숨었다 하여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5월이 제철인 꽃이라 이즈음 결혼하는 신부들이 부케로 많이 선택할 만큼 큰 사랑을 받는다. 작고 단단한 봉오리가 커다랗게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수백 수천 송이의  
꽃이 장관을  
이루는 조팝나무

꽃말 헛수고,  
하찮은 일, 노련하다



꽃이 핀 모습이 마치 좁쌀을 튀겨놓은 것 같다고 하여 조팝나무라 부르다가 조팝나무로 자리 잡았다. 꽃은 4~5월에 줄기의 짧은 가지에 4~5송이가 산형처럼 달린다. 하얀색 꽃이 수백 수천 송이가 무리 지어 피기 때문에 마치 흰 눈이 뒤덮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약용식물로 유명했는데, 특히 진통제의 대명사로 통하는 아스피린이란 이름은 조팝나무 속명 Spirea를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봄에 어울리는  
낭만적인 꽃  
라능쿨루스

꽃말 매력, 매혹



최근 찾는 이가 크게 늘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름은 '개구리'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Rana'에서 유래했다. 라능쿨루스가 연못이나 습지에서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300장이 넘는 하늘하늘한 꽃잎이 둥글게 포개져 있어 화사하고 볼륨감이 있다. 꽃 색은 붉은색, 분홍색, 흰색, 황색, 연황색, 오렌지색 등 다양하다. 낭만적인 꽃말과 화려한 모습 덕분에 결혼식 부케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감사와 사랑을 담아  
선물하는  
카네이션

꽃말 어버이에 대한 사랑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드리는 풍습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애나 자비스가 선생님이던 어머니의 추모식에 카네이션을 바친 것을 계기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카네이션은 색상마다 꽃말이 다르다. 빨간색은 '어버이에 대한 사랑', 분홍색은 '감사와 아름다움', 주황색은 '순수한 사랑', 파란색은 '행복', 보라색은 '기품과 자랑'이란 꽃말을 지녔다. 다만 노란색과 흰색은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란색은 '경멸', 흰색은 죽은 사람에게 전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

로맨틱함의  
대명사 장미

꽃말 애정, 행복한 사랑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함의 상징인 장미 역시 색상마다 꽃말이 다르다. 빨간색 장미는 '열정, 기쁨, 열렬한 사랑, 아름다움'이며, 주황색은 '수줍음, 첫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다. 노란색은 '질투, 이별, 우정, 완벽한 사랑'을, 분홍색은 '사랑의 맹세', 하얀색은 '순결, 존경'을 뜻한다. 파란 장미는 품종 개량에 실패하며 '불가능한 것, 얻을 수 없는 것'이란 꽃말이 있었으나 최근 품종 개량에 성공하면서 '기적, 천상의 사랑' 등으로 바뀌고 있다.



착한 꽃집에서 예쁜 꽃을 선물하세요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 서윤플라워의 유명미 대표는 미국 AIFD (American Institute of Floral Designers, 미국꽃디자이너협회) 공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다. 그녀의 실력에 반해 단골이 된 이도 여럿. 특히 기업 행사 관련 꽃 주문이 많은 편이다. 2014년부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해 벌써 5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인 만큼 고객에게 맞는 꽃을 판매하는 정직함을 우선으로 한다. 유 대표는 꽃을 꽃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고객만 생각하며 고객을 향한 열렬한 짝사랑 중이라고 말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지하 1층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02-723-9865



# 애지중지 반려식물

꽃이 예쁘긴 하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이도 많다. 최근엔 '반려식물'이라고 애지중지하며 실내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선물하기 좋은 실내 식물을 소개한다.



## 유칼립투스

코알라가 좋아하는 식물로 알려진 유칼립투스는 최근 다비치 강민경이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며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탈취 효과가 있고 벌레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



## 파키라

농촌진흥청에서 실내 미세먼지와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 5종을 발표했다. 멕시코소철, 박쥐란, 율마, 백량금 그리고 파키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키라가 4시간 동안 줄인 먼지의 양은  $155.8\mu\text{g}/\text{m}^3$ 에 달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 올리브나무

백년나무라고 부를 만큼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디지만, 생명력이 강해 키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통풍만 신경 써준다면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이다.

### 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플로리스트 교육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종합복지관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고령 장애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플로리스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은 전형적인 산악농촌 지역이다 보니 소일거리가 많지 않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이나 정서적 지지 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플로리스트 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 연계까지 가능한 자립 기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32회기 동안 결혼식, 무대 또는 공간 장식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교육 이론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이 끝난 후 지역사회 주민에게 작품을 알리며 향후 소득 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12월에는 작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회



**사랑의열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와 인식 개선 교육 업무 협약**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가 4월 16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센터장 강희석)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사랑의열매는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를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담당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또 두 기관은 장애인 인권 관련 정보 공유와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의 강희석 센터장, 협업 강사단 등이 참석했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의 '나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의 주체라는 뜻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그리고 교사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 강희석 센터장은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단체와 차별화했다”며,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며 공존하는 존재임을 교육을 통해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참여형 인권 교육을 추구해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와 사랑의열매의 만남이 무척 뜻깊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BS,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무상 교재 10만부 지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명중)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EBS 교재 10만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울림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의사와 EBS 김준범 대외협력국장, 어울림지역아동센터 구미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교재는 전국 2만 6,000여 명의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BS는 2009년 사랑의열매와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교재는 약 190억 원 상당, 연평균 70만 부에 달한다.

EBS 김명중 사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EBS 교재 무상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이어온 EBS의 꾸준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EBS 교재를 통해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받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죽집 할머니’ 김은숙 아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

서울 3대 팔죽 중 하나인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의 대표 김은숙 아녀의 기부금 중 2억 원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 ‘은평병원’의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은평병원은 환자의 39%가 의료 취약 계층으로 정신과 질환은 만성인 경우가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크다. 김은숙 아녀는 “환자 본인과 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성금이 다른 환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젬나컴퍼니, 1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 기부**

(주)젬나컴퍼니(대표 장현우)는 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 15만 6,000장을 기부했다. 마스크 팩은 먹거리나 누기운동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 기관 및 소외 계층 여성들에게 지원한다. (주)젬나컴퍼니 장현우 대표는 “화장품을 사지 못하는 소외 계층 여성들에게 이 물품이 기쁨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사랑의열매와 접점을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서천군, 12개소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대회실에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이 있었다. 착한가게 12개소 대표들과 노박래 서천군수를 포함해 충남 사랑의열매 박은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가게 참석자를 대표한 보스포러스 레스토랑 이미선 대표는 “경기 침체로 몇 년간 폐업을 한 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며,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에서 더 나아가 서천군에도 착한거리가 유치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9년 시·군청 담당자 간담회 개최**

지난 28일 충남 15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2019년 담당자 간담회가 열렸다. 충남도청 이종필 팀장을 포함한 27명의 시군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에 진행한 모금에 대한 결과 보고, 충남 사랑의열매 중점 추진 사업 소개, 시군 복지 담당자들의 협동을 위한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조별 토론 프로그램은 충남 사랑의열매에 바라는 점 등 시군 담당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20년간 이어진 재일 제주인 고태숙 여사의 장학금 전달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출신인 재일 교포 고태숙 여사가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고태숙 여사는 고향 제주의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380여 명에게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과 생활에 의지가 있는 대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한다.



### 오리온재단, 구좌사랑 희망드림사업 성금 1억 원 기탁

오리온재단(이사장 이경재)은 2018년부터 '구좌사랑 희망드림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3년간 3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그 약속을 지키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받은 1억 원은 구좌읍 관내 사회복지 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8개소에 지원했다. 이경재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건설협회, 산불 피해 1억 6,000만 원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1억 6,000만 원을 강원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건설협회, 공제조합, 사회공헌재단, 건단연, 강원도회, 서울시회, 경기도회, 경남도회, 인천시회, 경북도회에서 성금을 모아 기부한 것. 전달받은 성금은 산불로 소실된 주택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물품, 이재민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원주 단정바이오, 산불 피해 성금 기탁

원주 단정바이오(대표 정의수)는 지난 12일 산불 피해 성금 1,005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66호 아너 회원인 정의수 대표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것으로, 전달받은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밝히는 데 쓴다. 정의수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준 직원분들께도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 경기도시공사, G하우징 사업 3억 6,000만 원 성금 전달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도내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해온 경기도시공사가 'G하우징 사업' 3억 6,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G하우징 사업은 민간 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해 도내 저소득 소외 계층 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시공사 이현욱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올해에도 30호를 개·보수할 예정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티클라우드CC, 골프장 최초 착한일터 가입

2015년부터 3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북서울의 명문 골프장 티클라우드CC(대표이사 정길연)가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티클라우드CC는 동두천시 착한일터 12호점이자 경기도내 골프장 중에서는 최초의 착한일터가 되었다. 모은 성금은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독거노인 반찬 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쓸 예정이다. 정길연 대표이사는 "동두천 관내에 나눔을 함께하는 일터가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동도농산 주재동 대표, 경북 101호 아너 가입

동도농산 주재동 대표가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 가입식을 하고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다. 주재동 아너는 경북 101호, 경산 8호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이 되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내 어려운 직원들과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주재동 대표는 "경북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더 큰 나눔과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민들레 성모의집, 착한가게·착한일터 현판 전달식

지난 4월 11일 청도군의 민들레 성모의 집은 착한가게·착한일터 현판을 경북 사랑의열매로부터 전달받았다. 착한가게·착한일터 동시 가입은 민들레 성모의 집 기관 종사자들의 따뜻한 의미가 모여 이루어졌다. 모은 성금은 청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간 27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북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경북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광주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광주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20일 광주시(시장 이용섭)와 돌봄 이웃 문화 관람 지원을 위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취약 계층 관람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 관람권과 현금 등을 기부받아 광주 시내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족, 어르신과 장애인, 시설 아동 등 취약 계층에 수영선수권대회 경기 입장권과 식비 등 경기 관람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 1억 2,800만 원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와 해양에너지, 광주 사랑의열매는 3월 20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양에너지가 장학금을 기탁하면 광주시에서 추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광주 사랑의열매에서 사업비 집행과 행정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광주 지역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위 소득 기준 80% 이내 학생에게 매년 6,400만 원씩 총 1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구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이 3월 25일 대구 동구청에서 대구 동구 지역의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1,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1,000만 원은 동구 지역 내 장애인 생활 시설 다섯 곳에 200만 원씩 전달해 총 15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병식 부이사장은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생활 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달성군, 송해공원 주변 자영업자 착한가게 단체 가입**  
 2019년 4월 2일에 송해공원 주변 자영업자와 관계자가 모여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송해공원 주변 자영업자들은 송해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높아지자 관광객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소득의 일정 금액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환원하고자 24개 업소가 착한가게에 동시에 가입했다. 매월 모은 성금은 달성 군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대전지방변호사회,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4월 8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대전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 1호로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이번 협약은 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변호사회 및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서정만 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해 대전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복PLUS 참여와 나눔 지원' 수행 기관 교육 실시

지난 4월 9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행복PLUS 참여와 나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기탁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지정기탁사업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기관들의 원활한 배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탁사업의 절차와 전반적 사업 수행 방법,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 등으로 이루어졌다.

### 착한가게 3,000호 울산에서 탄생

4월 2일 울산 사랑의열매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가 탄생했다. 지역 최초로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한 울산 무거점 히즈빈스커피가 착한가게 3,000호로 가입한 것이다. 더 특별한 점은 히즈빈스커피 울산 무거점에서 일하는 정신장애 바리스타 중 일부는 지난 2017년 '나눔천사 기부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울산 무거점 히즈빈스커피는 나눔 문화의 선순환을 잘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된 것이다.



### 아음상가시장, 울산 제6호 착한전통시장 가입

지난 3월 22일에 울산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착한가게 단체 가입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시장의 침체로 시장 상인들의 나눔 실천은 이례적이어서 시선을 끌었다. 아음상가시장은 시장상인회 소속 10곳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하면서 울산 제6호 착한전통시장이 되었다. 아음상가시장은 시장을 살리고자 모퉁이 음악회 등 문화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북

**청주분재인연합회, <청품분재전> 수익금 기탁**

청주분재인연합회(〈청품분재전〉 회장 이장희)는 제15회 〈청품분재전〉 수익금 일부를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품분재전〉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역대 수상 작품은 물론 분재를 저렴하게 공급해 동호인의 저변을 확산하고 이웃 돕기 기금 적립을 위한 경매 행사도 진행했다. 이장희 회장은 “분재인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강원 산불 피해 성금 기부**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유병철)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2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석봉준 관리처장은 “산불로 상심이 큰 이재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충북 사랑의열매 이상익 사무처장은 “강원 산불 피해 지원에 동참해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고사리손으로 모은 저금통 성금 기탁**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 나누기 저금통 모금 캠페인’ 성금 2,035만 2,220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는 2015년부터 이웃과 더불어 사랑 나누기 저금통 모금 캠페인으로 총 9,559만 3,931원을 모금했다. 김인숙 회장은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느덧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 되어 기쁘다. 아이들의 인성 또한 무럭무럭 훌륭하게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눔리더 16호 탄생**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안재승 회장은 세종 사랑의열매 ‘중소액 나눔캠페인’ 나눔리더 16호에 이름을 올렸다. 안재승 회장은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와 배려 정신을 이어가는 데 앞장서왔다. 안재승 회장은 “지역의 나눔 문화 발전을 위해 먼저 솔선수범해야 주변에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눔리더에 가입해서 지역사회 나눔 전도사로 활동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전북 사랑의열매와 연합 모금 업무 협약 체결**

전북 사랑의열매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안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합 모금 업무 협약을 맺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은 복지관이 되어 후원자를 개발하고, 모금한 성금으로 지역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익산시청 직원 일동, 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정현을 익산시장 등 익산시청 직원 일동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이웃 돕기 성금 1,217만 3,000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익산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약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유례 없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보낸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피해 복구와 상처 입은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현대위아 임직원, 재난 취약세대를 위한 나눔 활동 전개**

현대위아(대표이사 김경배)는 경남 사랑의열매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현대위아 임직원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 ‘1%의 기적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것으로 성금은 사고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 과 장애인 470여 가구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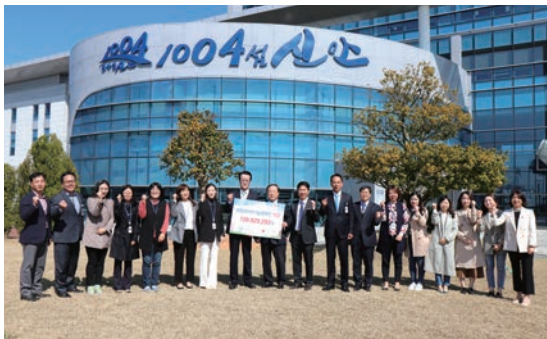
**2019년 신규 기획 사업 설명회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기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신규 기획 사업 주제 중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적응지원사업,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돌봄사업과 취약계층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양육환경조성사업은 중앙회 재원으로 총 3차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분야 수익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지원사업은 지회 기획 사업으로 진행하며, 신규 주체에 대해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장성군,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성금 전달**

전남 사랑의열매는 장성군 관내 개인·단체·공직자 등이 모은 3,600만 원의 성금을 강원도 피해 지역 주민에게 전달했다. 장성군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 모금, 장성군 민관합동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1차 성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 모금 창구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군청 민원봉사과에 자물 모금함 등을 설치해 오는 30일까지 2차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금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신안군 1억 9,000여만 원 성금 전달**

지난 4월 3일 신안군은 전남 사랑의열매에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 1억 9,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희망2019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신안군 관내 13개 읍·면 229개 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했으며, 그 밖에도 개인, 자영업자, 학교, 기업 등이 참여해 신안군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1억 9,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받은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소 나눔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강원 지역 주민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민아 사회가치추진실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한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일동,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직원 일동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474만 4,540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행정기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모든 기관 교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지난 17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재난 극복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금자리론은 원금 상환 유예를, 전세자금보장은 기한 연장 조건 완화 및 추가 보증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롯데이벤트, 2억 원 상당 티켓 기부 및

#### 양상문 감독·이대호 선수 나눔리더 릴레이 가입

3월 28일,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이벤트(대표이사 김종인)는 2억 원 상당의 야구 관람 티켓 2만 석을 기탁했다. 이와 동시에 롯데이벤트 양상문 감독과 이대호 선수가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티켓 전달식은 롯데이벤트 이윤원 단장,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상문 감독과 이대호 선수에게는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했다.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정기기부**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꾸준한 나눔의 약속  
문의 02-6262-3084



**기념일·이벤트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대전 70호



**김병한** 대한한의원 원장

“55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팔순을 기념해 사회에 조금이라도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주 102호



**고권진** 양돈농협 조합장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눔을 하고, 받으시는 분이 두 배로 만족할 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92호



**이길행** (주)동원메디칼 회장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의 나눔이 도움이 꼭 필요한 분에게 희망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경북 103호



**심정자** 이충우 아너 배우자, 경북 1호 아너 이상준

현대강업 대표이사의 어머니, 경북 3호 패밀리 아너 “가족의 선행을 좇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을 통해 명예로운 나눔 활동에 참여해서 저뿐 아니라 경북의 소외된 이웃들도 건강과 활력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중앙회** 故 강승구, 이신기 신한아이타스(주) 고문
- ☀️ **서울** 김준환, 이두석 엘에이씨(LAC) 대표
- ☀️ **경북** 익명
- ☀️ **인천** 한점자
- ☀️ **경기** 어선선, 김중수 아모레퍼시픽 안산지점 대표, 양해권 이피코리아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 ☀️ **전북** 이그린, (주)자연미 흥여우 대표
- ☀️ **광주** 정길주 (주)제이앤제이 우드 대표, 김상우 상삼토건(주) 대표이사, 이은정, 이선준
- ☀️ **제주** 황선태 황보건설 대표, 문기봉 우리천막 대표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지난호 독자 의견



→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시각과 후각을 유혹하며 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봄철의 꽃놀이가 마치 달나라로 가는 우주여행만큼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4월호에 실린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보며 많은 기업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도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봄나들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상생 여행이 될 것입니다.  
- 최재호 중남 흥성군

→ 이번 호 기사 중 가장 영운이 남는 칼럼은 '피로를 흘출 날리는 봄날의 티타임'이었어요. 오늘은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대신 책에 나온 차를 마셔보려 합니다. 새벽같이 일하러 가는 우리 남편,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3 수험생 우리 딸의 스트레스와 춘곤증, 피곤함까지 모두 모두 날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날씬하고 건강한 셀렌이 선택한 우영차는 제가 마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이 오지 않는다는 우리 남편은 라벤더차, 긴 통학 시간과 좁은 교실의 답답함을 견디는 우리 딸은 녹차로 오늘 밤에는 우리 가족 모두 여유로운 건강한 티타임을 가져보려고요. 〈사랑의열매〉 기사 속 예쁜 사진을 보는 재미와 함께 차의 효능까지 제대로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차영 전남 여수시

→ 이번 호 '나의 첫사랑'에 나온 남편의 뜻에 따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김기호 대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남편의 뜻에 따라 아너 가임에 이어 쉽지 않은 유산 기부까지 약속하셨네요. 최근에는 나눔리더에도 가입했고, 가족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정에도 동참하고 계시다니 이 시대 최고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아내에도 가입하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 나눔을 통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 양서희 전북 장수군

##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담요

머그컵

에코백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 812,212명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기부자 812,212명의 소중한 나눔이 모였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지원절차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844,383,307,080**원을 도움이 필요한

**29,699**개의 기관과 **466,981**명에게 전하였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총 지원금 <b>8,443</b> 억 원 (비경상 배부 포함)	아동/청소년 <b>1,160</b> 억	노인 <b>707</b> 억	장애인 <b>641</b> 억
여성/다문화 <b>359</b> 억	위기가정 <b>947</b> 억	지역사회 <b>4,427</b> 억	해외/북한/기타 <b>202</b> 억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전문모금기관입니다.  
· 이 공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요

